



## 1월의 기도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만세 전에 예정된 성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가 5:2)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에 대해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1.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누구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2. 2026년 모든 것이 평온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또 하나님의 원년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3.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현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모든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4.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영훈 목사님과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을 모시고 중단없는 세계선교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dhanunjay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DCEM 2025년 해외성회

## &lt;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gt;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이루기 위한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대성회'가 24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문화예술극장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를 주강사로 개최됐다.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성회에는 일본 최북단 오키나와에서 전국 각지에서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처음 열린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은 총재 조용기 목사의 유지를 계승, 다음 세대를 향한 문화·예배 중심의 축제로 새롭게 재정립한 사역이다. 오키나와현 30여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 준비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른 오후부터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예배에 앞서 진행된 뮤직 페스티벌에는 10개 교회 13개 팀이 찬양과 악기 연주, 워십과 부채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다.

공연 시작 전부터 입장장을 기다리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졌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서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힘찬 드럼 연주로 막을 연 1부 음악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데 목을 내밀고 찾지 말라. 네가 숨 쉬는 곳에 내가 있고, 네가 고함치는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나를 너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해요.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다스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와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절망함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 1. 길 위의 인생

이 바디매오는 맹인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상속받은 인간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을,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간의 삶이 저주

## 아직 희망이 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52절)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디매오는 그 일생에서 그 장님이 눈을 뜬다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돌아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독에 쌀을 잔뜩 부어놓아도 그 가슴에 희망이 없으면 독에 있는 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지, 세상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바디매오는 동전을 구하고 살았지 희망은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망을 발견하고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 2. 아직 희망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하셨더라. 점잖 빼지 마십시오. 남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숨을 죽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시편 18편 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매오는 걸웃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 나갔습니다. 유대 땅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외투로 걸쳤던 걸웃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매오에게는 걸웃은 전 재산이 다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자 미련 없이 걸웃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디매오의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디매오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3.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 O …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이모저모



① DCEM 사무총장 순복음동경 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와 동경교회성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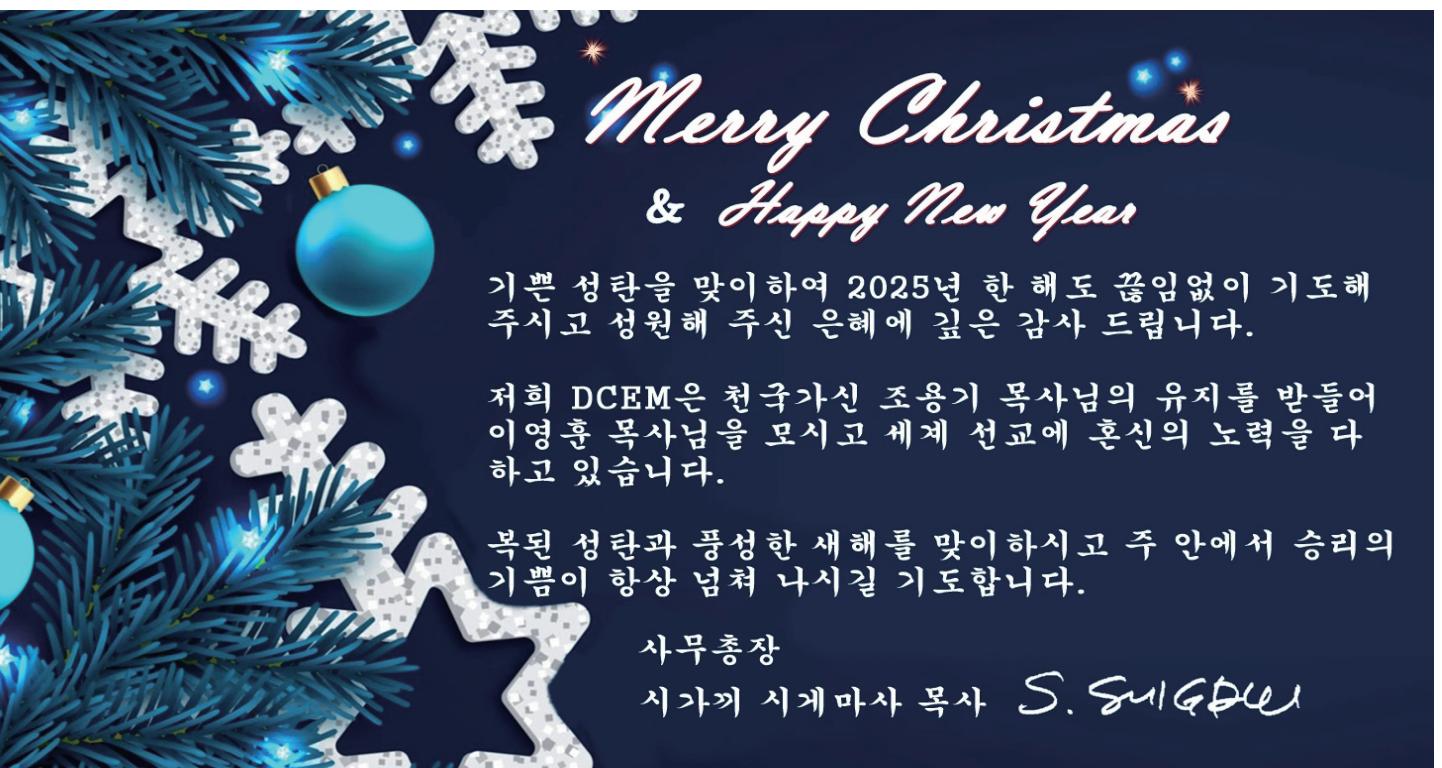
② 순복음오키나와 은혜교회의 남녀노소가 함께 찬양하며 세대가 하나 되는 장면

③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현지 포스터

④ 19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살롬 하프팀의 연주 천양

⑤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적 색채가 강한 오키나와 전통공연

⑥ 좌 이영훈 목사 우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25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DCEM은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선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 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ngdeu